

사설

불교 중흥은 스님들 손에

“불교의 흥망은 승려들에게 달려 있다. 승려들은 받들어야 하는 발(跋)이기에 마땅히 받들어야 한다. 승려들이 신중하면 불법도 소중해지고, 승려들이 경망스러우면 불법도 경멸을 당하게 된다.” 강원외 교재인 <취경문>에 나오는 구절이다. 너무나 지당한 말을 새삼 인용하는 것은 불교계의 현실이 너무나 잘 부합하는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은 지난 3일 중앙승가대에서 열린 본말사 주지 연수회에 참석하여 중대 대표자로서 치사를 했다. 이 치사에서 상기 구절을 인용하여 승가의 위상을 바로 세우자고 역설했다. 또한 법장스님은 “한국불교는 모든 분야에서

한국사회 또는 세속의 중생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자괴감을 피력하고, “그 원인이 종단의 제도나 승려들이 인일과 나태에 빠져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지 못했고, ‘수행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출가자들은 여래의 사도들이다. 따라서 여래의 집에 들어가 여래의 옷을 입고, 여래의 자리에 앉아 중생을 교화하는 일에 헌신한다. 그러나 출가자의 본분을 망각하면 대중의 외면을 받게 된다. 그런 점은 현대사회에서 더욱 철저하다. 개방과 자유, 탈권위화와 종교다원화는 승려들의 인일과 나태를 용납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불교의 흥망이 승려들에게 달

‘달라이 라마 방한’ 협상카드?

종교, 특히 불교의 입장에서 평화는 전쟁의 반대말이 아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의 평화는 국가간의 관계 혹은 강대국의 힘의 우위가 강제하는 전쟁 양식의 상태라고 보는 것이 올바른 판단일 것이다. 최근 북한 핵 문제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이루어진 한·중 정상 회담이 끝났다. 그 과정을 지켜 보면서 현재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얼마나 허약한 기반 위에 놓여 있는가를 다시금 확인하게 됐다. ‘달라이 라마 방한’ 문제가 11개 항의 공동성명에서 제외된 건 당연(?)한 결과라고 봐야 할 것이다. 핵심 현안인 북핵 문제의 직접 당사자이면서도 ‘다자간 회담’으로 간신히 끼어들 수밖에 없는 한국의 현실이 그것을 말해준다. 혹자는 우리 정부가 달라이 라마

방한 문제를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버릴 카드로 준비했다고 말한다. 일리가 없진 않으나, 중국 정부로부터 달라이 라마 방한을 불허하라는 다짐 압력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도 인정해 주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정전할 일은 아니다. 주권 국가로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두 가지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첫째, 종교조차도 정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다. 둘째, 종교적 지향이 국가의 이익과 상충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냉철히 오늘날의 한국 종교, 아니 불교의 실체를 살펴보자. 정치적 입장이나 국가 이익 따위를 초월할 정도로 본분에 충실한가? 달라이 라마 방한 여부는 부차적인 문제다. 어디에도 종속되지 않는 종교 본래의 가치를 최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Table with 2 columns: Contact info (회장, 발행, 인세 등) and Website info (인터넷, 정보센터, 불교소평 등)

“승가교육체계 변해야 한다”

삼보·역사·현실 중시 체제로 전환을 시대 걸맞는 승가상 강원서 확립돼야

전승련 학술대회

“현재의 강원 교육과정으로는 불교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시대적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적응하지 못한다” 조계종 기본교육기관에서 수학하고 있는 학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통 강원의 교육체계를 돌아보는 학술대회가 전국승가학인연합(전승련) 주최로 11~12일 중앙승가대에서 열렸다. ‘승가교육과 한국불교’를 주제로 열린 이번 학

술대회는 무어스님(축서사 조실)과 정련스님(내원정사 회주)의 법어와 ‘승가교육으로 본 한국불교’ ‘강원교육과 수행환경’ ‘불교의 사회참여’ 등 소주제별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승가 교육체제와 교육환경, 교과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350년동안 변하지 않는 전통 강원의 교육체제에 대한 학인들의 변화 요구가 여실히 나타났다.

해월스님(동화사강원 강주)은 ‘강원교육, 불교를 알 수 있는’이란 주제의 논문에서 “사미, 사집, 사교, 대교과의 교과목으로는 역사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불교를 알 수 없다”면서 “지금부터라도 삼보와 역사성, 실현성, 현실성을 중시한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경스님(송광사강원 학장)도 올바른 강원교육을 위해서는 한문교재의 한글화, 승려 자질 향상을 위한 교과목 배치 등 교과

목 다양화, 주지 등 외부인사의 인식 변화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지문스님(중앙승가대 불교학과)은 교과목의 전문화, 교수법의 과학화, 정보화 관련 교과목 강화, 교과목의 다양화 등 교과과정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강원외의 강원외교과와 열악한 교육환경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제행스님(쌍계사강원 사교과)은 “강원 교육시설과 환경이 미흡하고, 대중생활에서 감정적인

언어나 군대식의 강압도 학업성취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교육환경의 개선과 승려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과과정으로 재편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행공동체와 강원’을 주제로 발제한 흥선스님(직지사강원 강주)은 “강원 학인들이 사이에서 유지되는 집사는 모범과 합리적 설득, 그에 따른 자발적 순응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힘과 권위에 기댄 강요와 굴종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고 강원운영의 현실을 신랄하게 꼬집었다. 흥선스님은 “바람직한 승가상 확립을 위해 무소유, 평등, 노동을 회복하는 일이 시급하며, 교육과 수행의 장인 강원에서부터 확립, 정착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승련은 전국 20여 강원외와 동국대, 중앙승가대에 재학생인 학인 1,800여명으로 구성된 기구로, 매년 학술대회와 승가학인대회를 열고 있다. 박종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7대 종교지도자 청와대 오찬 노무현 대통령은 11일 불교 개신교 천주교 등 7대 종교 수장들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했다. 조계종 총무원장법장스님은 노대통령에게 북한산 관동도로 백지화를 요청했다.

조계종 중앙총회 의원 21~22일 이틀간 연수

조계종 중앙총회의원 연수가 이달 21~22일 이틀간 중앙승가대학교에서 열린다. 이번 연수회는 총회위원들의 의정활동 및 상임위원회 활성화, 입법기능 및 총책감시 기능 강화, 상호간 유대강화를 목적으로 열리며, 지난 11대·12대 총회에 이어 이번(13대)이 세 번째다. 연수회는 ‘총무원장과의 대화’ ‘분과 간담회’ ‘초청강연’ 등으로 진행된다. 한명우 기자

봉은사 전면 재조사 요구키로 조사특위소위 “감사협조 안해 어려움 많아”

봉은사 조사특위 소위원회(위원장 법안)가 봉은사에 대한 총무원 집행부의 전면 재조사를 요구키로 했다. 소위원회 위원장 법안스님은 11일 소위원회 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감사결과 여러 가지 의혹이 드러났지만 봉은사가 감사에 협조하지 않아 사실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총무원 집행부의 전면 재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법안스님은 봉은사에 대한 특위조사 결과와 △장부과 통장 내역의 차이가 상당한 규모에 달했고 △보우당 불사에 대해 고건추천문제가 감리를 위한 결과 총공사금액의 절반가량이 차이가 났으며 △불사내역의 장부상 미비점도 상당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한명우 기자

“재가불자들이여! 제를 지킵시다”

6재일 8재계 실천운동

조계종 포교사단은 형식화되어 있는 재가불자들의 신행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6재일 8재계 실천운동’을 전개한다. 6재일 8재계 실천운동은 한달에 6일의 재일을 지키면 전통을 살려 8, 14, 15, 23, 29, 30일 6일 동안 8재계를 지키자는 운동. 포교사단은 6재일 8재계 실천운동을 통해 포교사에 대한 불자들의 신뢰를 높이고 포교사의 지도력 향상을 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포교사단은 수계의식을 거쳐 실천 의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8월 17일 해인사에서 해인사 율원장 혜능스님을 증명으로 8재계 수계 실천법회를 봉행한다. 박종영 기자

랑가 수재민 돕기 모금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에 따르면 10월 현재까지의 모금액은 3천 여 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모금에는 현대불교와 법보신문을 포함해 등학생, 진관사, 장곡사, 용덕사 등 사찰과 신행단체인 신수회가 동참했으며, 스님과 불자들이도 개인별로 성금을 보내왔다. 또 최근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들이 모금운동에 참여키로 하면서 쌍계사가 5백만원을 성금으로 낸데 이어 불교사 등 다른 교구본사들도 활발한 모금운동을 벌이고 있다. 성금 모금은 이달 말까지 계속된다. 한명우 기자

Cartoon titled '현대' 민명 (Modern Minmyeong) by Shim Minseop. It depicts a man sitting on a large sack labeled '경제가 어렵다' (Economy is difficult) while another man stands by with a stick, symbolizing economic hardship.



삼화불교대 학생 모집

Table with 5 columns: 학과 (Department), 수업기간 (Course Duration), 모집과정 (Admission Course),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Qualification and Documents), 특별전형30% (Special Admission 30%).

- List of 2008-2009 academic year admissions for Samhwabulgyo University, including departments like Buddhist Studies, English, and Education, with details on enrollment numbers and dates.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대한불교 조계종 삼화불교대

남경의과대학

Table with 3 columns: 학과 (Department), 수업 (Course),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Qualification and Documents). Lists departments like Internal Medicine and Surgery.

- Information about Namgye Medical University, including school introduction, application methods, and contact details for the admissions office.

고등학교과정 학생모집

Advertisement for high school course student recruitment, including details on enrollment, application method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Samhwabulgyo University.